

# 계란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농약잔류허용치 들쭉임을 계란의 1,000배 -

계란 살충제 파동은 채란업을 한 순간에 평가절하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관리부실은 물론 농가들의 잘못된 사용 관행 등 총체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잔류물질이나 농약 살충제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7항목,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320항목으로 검사항목의 차이 뿐 아니라 검사장비 및 방법에서의 차이로 많은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제를 통해 처방이 이루어지지만 살충제는 농가에서 자유로이 선택,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고 무허가 불법 살충제 사용이 용이했던 것도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방역전문업체나 전문 수의사들에 의해 잔류물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친환경제제 개발 및 검증,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산란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성분은 피프로닐(Fipronil), 비펜트린(Bifenthrin)을 비롯해 약 19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각 품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비펜트린의 경우 계란은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27종의 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은 국제식품규격

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잔류 허용기준(비펜트린)

농약잔류 허용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명 : 비펜트린  
 용도 : 살충제  
 농약잔류허용기준 식품수 : 한국 69개, CODEX 39개

No.	식품명	기준치 (mg/kg)	CODEX 기준	No.	식품명	기준치 (mg/kg)	CODEX 기준
1	들깨잎	10.00	0.4	36	가지	0.30	0.30
2	시금치	7.00		37	블루베리	0.30	
3	참나물	7.00		38	호박	0.20	
4	고추(건조)	3.00	5.00	39	자두	0.10	
5	상추	3.00	0.30	40	잠외	0.10	
6	양상추	3.00		41	파	0.10	
7	자	3.00		42	엽경채류	0.07	
8	취나물	3.00		43	감자	0.05	
9	대추(건조)	2.00	0.50	44	고구마	0.05	
10	엇갈이배추	2.00		45	고구마줄기	0.05	
11	엽채류	2.00		46	기타농산물	0.05	
12	갓	1.00	5.00	47	녹두	0.05	
13	고추	1.00	5.00	48	닭고기	0.05	
14	근대	1.00		49	닭부산물	0.05	
15	매실	1.00		50	닭지방	0.05	
16	머위	1.00		51	더덕	0.05	
17	브로콜리	1.00	0.30	52	마	0.05	
18	아욱	1.00		53	마(건조)	0.05	
19	피망	1.00	0.50	54	마늘	0.05	1.00
20	녹차주입물	0.70		55	멸편	0.05	
21	배추	0.70	0.40	56	무(뿌리)	0.05	
22	감귤	0.50	0.05	57	무(잎)	0.05	4.00
23	대두	0.50		58	밤	0.05	
24	대추	0.50		59	생강	0.05	3.00
25	딸기	0.50	1.00	60	소간	0.05	
26	부추	0.50		61	소신장	0.05	
27	소고기	0.50		62	수박	0.05	
28	소지방	0.50		63	양파	0.05	
29	수삼	0.50		64	오미자	0.05	
30	수수	0.50		65	우유	0.05	0.20
31	오이	0.50		66	키위	0.05	
32	인과류	0.50		67	팥	0.05	
33	토마토	0.50	0.30	68	꽃마늘	0.05	
34	포도	0.50	0.30	69	계란	0.01	
35	팥콩	0.50			육류		3.00

## 대상 살충제의 닭고기 및 알 잔류허용기준

(17. 4. 20(목), 유해물질기준과)

번호	성분명(영문)	잔류허용기준(mg/kg)		근거
		닭고기	알	
1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	아미트라즈(Amitraz)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3	이버멕틴(Ivermecti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4	아바멕틴(Abamecti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5	페노뷰카브(Fenobucarb)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6	다이아지논(Diazinon)	0.02	0.02	식품공전 농약 기준
7	디클로로보스(Dichlorvos)	0.05	0.01	(닭고기)식품공전 농약 기준 (알)CODEX 농약 기준*
8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9	메티다티온(Methidathion)	0.02	0.02	식품공전 농약 기준
10	아이소펜포스(Isopropthos)	0.02	불검출	(닭고기)식품공전 농약 기준 (알)-
11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0.01	0.01	CODEX 농약 기준*
12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0.02	불검출	(닭고기)식품공전 농약 기준 (알)-
13	포레이트(Phorate)	0.05	0.05	CODEX 농약 기준*
14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 methyl)	0.01	0.05	(닭고기)CODEX 농약 기준* (알)식품공전 농약 기준
15	비펜트린(Bifenthrin)	0.05(β)	0.01	식품공전 농약 기준
16	카바릴(Carbaryl)	0.5	0.5	식품공전 농약 기준
17	프로폭서(Propoxur)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18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0.05	0.05	식품공전 농약 기준
19	클로티아니딘(Clotianidin)	0.01	0.01	CODEX 농약 기준
20	에톡사졸(Ethoxazole)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1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5	0.05	CODEX 농약 기준
2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3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0.02	0.02	CODEX 농약 기준
24	피리다벤(Pyridabe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5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불검출	불검출	잔류허용기준 없음
26	설흐사플로르(Sulfoxalor)	0.1	0.1	식품공전 농약 기준
27	피프로닐(Fipronil)	0.01	0.02	CODEX 농약 기준*

위원회(CODEX)의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되고 있다. 물론 각 식품별 소비량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CODEX 기준과도 차이가 크다. 계란내 살충제 잔류물질 허용치를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피프로닐은 0.02mg/kg, 비펜트린은 0.01mg/kg, DDT(유기염소계)는 0.1mg/kg으로 되어 있고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은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들 약제는 진드기, 응애, 진딧물, 파리, 모기, 벼룩, 바퀴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살충, 제초효과가 있는 약제들이다.

대표적으로 비펜트린의 경우 국내에서는

69개 품목, CODEX는 39개 품목에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표를 보면 들깨잎은 10mg/kg으로 계란 0.01mg/kg보다 무려 1,000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 만약 들깨잎과 같이 잔류허용기준치가 같았다고 가정하면 이번 살충제 파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이, 풋콩, 소고기, 배추 등과 같이 0.50mg/kg이었다면 '기준치 24배 검출'이라고 대서특필 될 일도 없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난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조작사건을 터뜨렸다는 루머도 있을 정도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완벽한 영양

소인 계란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농가들이 계란이 왜 못매를 맞아야 하느냐고들 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살충제 위해성으로 본 계란의 안전성'을 발표한 최경철 충북대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5개 살충제에 대해서는 급독성 위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농약잔류 허용치 기준을 다시 한 번 재설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계란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